■ 주간 증시 포커스

美 불확실성 감소·신뢰 회복
뉴욕증시 훈풍에 반등 기대
금융·바이오·제약·게임주 관심 필요

연휴를 앞두고 국내증시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감소하며 관망세를 보였지만 글로벌증시의 반등으로 코스피지수는 2421P를 회복하며 2.46% 상승했고 코스닥지수도 주초반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수요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메디톡스 등 시가총액상위 제약바이오주의 강세로 소폭 상승하며 연휴를 맞이했다.

연휴 동안 미국증시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로 수요일 장 초반에는 하락출발했지만 기술주 강세로 3대지수 모두 수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1%넘는 상승을 보였다.

금요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출발했는데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2016년 대선개입 협의로 러시아인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지만 6일연속 상승했고 주중반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던 나스닥지수는 소폭하락하며 마감했다.

2월초 미국증시의 급락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 지난 2일 발표한 미국 '1월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좋게 발표되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장기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뉴욕증시의 성격을 현재 실적장세에서 '역금융장세'로 전환시키는 계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며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역금융장세는 일본의 기술적분석가 우라가미 구니오가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주식시장의 유형을 금융(유동성)장세-실적장세-역금융장세-역실적장세로 구분하고 실적장세 이후로 주식시장이 최고 활황기를 맞아 주가에 불안을 느낀 전문투자자가는 차익실현에 나서고 정부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장세이다. 하지만 시장에 확신을 느낀 일반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지수 상승세는 이어가는데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장세라 할 수 있다.

이번주 21일,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3월 1일 재롬파월 FOMC 신임의장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며 신임의장과 함께할 부의장 지명절차가 진행된다. 지난주 언급했듯이 2월 하락은 차기 FOMC위원들의 불확실성과 금리인상속도에서 출발했다.

의사록공개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3월 20일 예정되어 있는 재롬파월 의장의 첫번째 FOMC 에서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역금융장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주, 조정시 저점매수를 권유해드렸는데 이번주는 주초반 반등시 현금비중을 확대하고 조정시 금리상승수혜업종인 금융주와 제약·바이오 및 게임주와 함께 단기낙폭이 큰 대형주에 단기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이사대우〉

지난해 전남 농민에 가장 큰 재해는 '가뭄'

7078건 피해 접수 … 전국 가뭄피해 보험금 762억
전국 농작물 피해 주범은 우박 보험금 1390억 최다

지난해 농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자연재해는 우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가뭄으로 인한 벼농사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접수된 사고 중 우박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이 1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지급 보험금의 60.4%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뭄 피해로 인한 보험금은 762억원이었고, 태풍·강풍은 146억원, 봄동상해는 4억원이었다. 우박과 가뭄으로 인한 보험금을 합하면 전체 보험금의 93.5%에 달한다.

보험금이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우박과 가뭄이 지난 한해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셈이다.

특히 전년 대비로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박 피해에 따른 보험금이 2016년에 59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도의 23배로 급증했다. 가뭄 피해에 대한 보험금 역시 전년 91억원의 8배로 불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금도 2016년 597억원에서 지난해 2302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 손해율은 같은 기간 34.0%에서 84.9%로 껑충 뛰어올랐다.

우박 피해는 지난해 5월 충남 예산, 경북 안동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 9월 충북 충주, 강원도 춘천, 경북 안동에까지 이어졌다. 시기는 6월에, 지역은 경북과 충북에 피해가 집중됐다.

우박 피해를 주로 보는 사과, 배 등 과수의 사고 접수 건수는 모두 2056건으로, 이중 경북이 1527건, 충북이 473건이었다.

가뭄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일찍 시작해 벼 농가를 중심으로 피해를 줬다. 5월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경기 남부, 전남 해안가로 퍼졌다.

지난해 벼 가뭄 피해 접수 건수는 모두 1만5332건으로, 전남(7078건)과 충남(6916건)의 피해 건수가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2016년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태풍·강풍은 지난해에 덜한 편이었다. 태풍·강풍에 따른 보험금은 146억원으로, 전년(413억원)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2016년에는 태풍 '차바'가 한반도 남부를 강타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오는 21일부터 사과와 배 등 과수를 시작으로 원예시설, 시설작물, 버섯 등 농작물재해보험이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18일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귀경하는 향우들을 대상으로 지역 브랜드 쌀을 홍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 종자강국 부상
식물특허 출원 7위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1998년 식물의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후 2017년 말 현재 식물특허가 9959건이 출원됐으며, 7070건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는 출원 건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2016년 누계 기준)로,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품종보호 출원 상위 10개국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 네덜란드, 중국, 러시아, 한국,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순이다.

지난 한해 동안만 보면 총 746건이 출원됐고, 화훼류, 채소류 등 신(新)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최근 품종보호 침해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어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쌀 많이 애용해 주세요"
농협전남본부·광주본부, 송정역서 귀경객 대상 홍보 캠페인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와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18일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을 맞아 귀경객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쌀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농협은 KTX광주송정역에서 김병원 중앙회장과 코레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인 담양 대숲맑은쌀, 영암 달마지쌀골드,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무안 황토랑쌀, 광주 빛찬들쌀, 풍광수토 등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남농협은 지난 2003년부터 15년째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가 귀경하는 향우를 대상으로 쌀 홍보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았던 향우들은 우리 지역 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잠재적 홍보마케터들이다"며 "향우들이 우리 지역 우수한 브랜드 쌀을 지인들에게 권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aT, 농수산물도매시장 자금 융자 지원
도매시장 출하촉진·가격안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18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출하촉진과 가격안정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금 지원규모는 총 370억원이며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출하촉진을 위한 선도금·결제자금과 정가·수의매매를 확대를 위한 결제자금 등을 지원한다.

선도금과 정가·수의매매 자금은 연 1.5%, 결제자금은 연 3.0%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선도금 의무 사업량 완화,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금지원이 간편해졌다.

도매시장 자금 지원을 신청은 오는 3월 2일까지 aT의 각 관할지역본부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백태근 aT 유통조성처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력은 농어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주고 소비자도 안정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의 핵심"이라며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aT 홈페이지(http : //www.aT.or.kr) 공지사항 또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 : //market.okdab.com) 지원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